

마스크 썼더니 피부 트러플 폭발했다면...

# 마찰 줄이고 100% 순면 사용을

〈KF94 마스크〉

입 주변만 트러플 ‘접촉성 피부염’ 착용 후 습기 차기 전 교체하고 원자재 알레르기 반응 확인해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제 면 마스크에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면 KF80 보건용 마스크 만큼 비말 입자 차단 효과가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면서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트러플을 일으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온종일 마스크를 착용한 뒤, 마스크가 닿는 입 주변으로 붉은 반점, 가려움증, 뾰루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플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다.

◆WHO, 마스크 재사용 대신 교체 권고  
마스크에 찬 습기가 피부 트러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장기간 사용하면 마스크와 피부 사이 공간에 습기가 차기 쉽다. 이렇게 습기가 찬 상태가 오래 지속하면 세균 번식이 쉬워져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게 달아오르는 등 트러플을 유발할 수 있다.

마스크 내부 습기로 인한 트러플이 우려된다면 습기 방지용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마스크에 습기가 차기 전에 마스크를 교체해주는 것이 증상 개선에 좋다.

◆KF94에 들어가는 폴리에틸렌 재질  
코트등과 두뺨 등 마스크가 닿는 부분

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마스크를 오래 착용해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KF80, KF94 등 얼굴에 완벽하게 밀착시켜 착용하는 마스크의 경우, 코트등과 뺨이 닿는 부분에 금속 스트랩이 부착돼 있다. 이 부분이 피부에 계속 닿으면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등과 같은 합성 섬유와 접착제를 사용해 만들어지므로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의 경우 더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KF80, KF94를 비롯한 일회용 마스크 이용 주의사항에도 해당 소재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 않아, 마스크 착용

으로 인한 트러플을 겪더라도 원인을 모를 수 있다.

폴리에스터와 폴리에틸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도 일회용 마스크 원자재로 등록돼 있지만, 사용 시 주의 사항 중 폴리에스터 및 폴리에틸렌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을 게재해야 하는 관련 법령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면 마스크는 비말이 많이 묻으면 안쪽으로 바이러스가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예방용으로는 적절하지 않기에 대부분의 경우 화학 섬유로 만든 마스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러나 화학 섬유로 만든 마스크가 장시간 민감한 피부에 닿으면 쉽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편해도 방법은 있다

A 피부과 전문의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불가피하게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경우 코와 입, 턱 등 얼굴과 마스크가 마찰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를 위해 100% 순면으로 KF94를 제작하는 업체도 있다. 마스크 전문업체 E사는 지난해 12월 로하스 인증 100% 순면 안감이 적용된 KF94 미세면지 마스크를 출시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이니스프리, 중동 1호 플래그십 스토어가 지난달 2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몰에 열렸다.

## 이니스프리 ‘중동女心’ 잡기 두바이몰에 플래그십스토어

연 8000만명 방문 중동 최대 상권 두바이 인플루언서와 오프닝 행사 “고온건조 기후맞춰 혁신제품 제안”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몰에 중동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이 위치한 두바이 몰은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 대표 쇼핑몰이다. 이니스프리 자연주의 콘셉트를 보다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중동 내 첫 매장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의 청정 섬 제주 자연에서 얻은 영감과 제주 헤리티지를 살린 천연 재료들을 활용해 꾸며진 플래그십 스토어다. 더불어 제주 자연에서 온 천연 원료를 담은 혁신적인 이니스프리 뷰티 아이템들을 테

스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니스프리의 모든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보디 컬렉션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매장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픈 첫날, 그랜드 오프닝을 기념해 매장을 방문한 100명의 고객에게 이니스프리 제품으로 구성된 ‘그린 럭키박스’를 증정했다. 두바이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들도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K-뷰티 스킨케어 팁과 이니스프리 주요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이니스프리 중동 관계자는 “이번 두바이 몰 입점은 국내 시장을 넘어 중국, 미국, 캐나다에 이어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라며, “고온 건조한 중동 기후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한 혁신적인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을 제안하는 등 중동 시장 공략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 밀레니얼 소비자 움직임 키워드는 ‘V.I.P.’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선정

최근 몇 년간 밀레니얼 세대가 주목하는 화두는 친환경 가치 소비다.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소비자들이 나날이 늘면서 기업의 친환경 행보가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패션 업계도 다양한 친환경 제품 출시와 프로모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연 보호를 넘어 지구 안 모든 생명과의 공존으로 의미를 확대하거나 브랜드 철학과 부합하는 특정 영역과의 연결성 강조, 획기적인 신소재 개발 등 더욱 뚜렷한 친환경 가치 소비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친환경 가치 소비 추세에 맞춰 친환경 소재에 메시지와 기능성, 디자인을 더 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올해의 이런 업계 트렌드를 보여주는 키워드로 ‘브이아이피(V.I.P.)’를 꼽았다고 1일 밝혔다. VIP는 동물 보호와 채식주의(Vegan Fashion), 혁신적인 친환경 소재 개발(Innovation Material), 플라스틱 재활용(Plastic Zero)의 첫 글자를 의미한다.

◆Vegan Fashion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비건을 패

- V 동물 보호, 채식주의 Vegan Fashion
- I 친환경 소재 개발 Innovation Material
- P 플라스틱 재활용 Plastic Zero

션에 적용한 비건 패션 브랜드도 생겨났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자연과 인류를 연구하는 탐험가 정신에 근간을 둔 브랜드 철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류와 액세서리에 동물의 리얼 퍼 사용을 철저히 금지한다.

또 동물 학대 없이 윤리적인 다운 채취 인증 ‘RDS’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올봄, 아프리카 사바나의 멸종 위기 동물을 그래픽으로 활용한 캠페인 티셔츠도 출시할 계획이다.

◆혁신적인 친환경 소재 개발

패션 브랜드들은 의류 소재를 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친환경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SPA 브랜드 H&M은 와인 생산 후 남은 포도 찌꺼기를 가죽 대체 소재로 만들고, 친환경 의류 제품으로 출시했다. H&M이 발견한 ‘비제아(Vegea)’는 가죽과 유사한 질감이 특징으로, 의류는 물론 핸드백과 신발 등 다양한 패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비제아 소재를 활용한 의류 라인인 올 3월부터 전 세계 H&M 매장

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버려진 플라스틱의 재활용

쓰지 않는 플라스틱 병이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환경친화적 가치를 담아 새 활용한 리사이클 소재도 주목받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폐플라스틱을 다양한 친환경 원단으로 재활용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기린아트웍 티셔츠’ 등 획기적인 리젠 원단을 적용한 신제품 2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리젠은 버려진 페트 병을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로 만들어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석유 자원을 절약하는 친환경 원단 소재다. /조효정 기자



▶내셔널지오그래픽어패럴 멸종위기동물 캠페인 티셔츠

## “봄에는 라힘 스틸링처럼 ‘에슬레저 패션’

H&M ‘스프링 에센셜 컬렉션’ 공개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2020년 봄 시즌을 맞이해 남성을 위한 ‘스프링 에센셜 컬렉션’을 1일 제안했다.

이번 컬렉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라힘 스틸링이 캠페인에 참여해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정교한 테일러링에 에슬레저 감성을 더한 룩을 보여준다. ‘스프링 에센셜 컬렉션’은 2월 27일부터 전국 H&M 매장 또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컬렉션은 스마트한 체크 코트, 슬림 핏 조거 팬츠, 발목 기장의 슬랙스, 캐주얼한 유틸리티 셔츠 등이 필수 아이템이며 사프한 실루엣은 올 봄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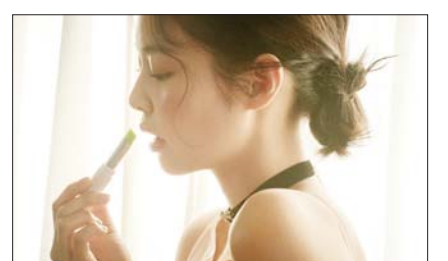
기에 크로스 바디 백이나 힙색과 같은 액세서리를 이용해 개성을 더하거나 청키한 스니커즈를 매치해 룩을 마무리한다. 컬러 팔레트는 브라운과 베이지색이 주를 이루며, 단색의 블랙과 화이트가 대조를 이루고 경쾌한 봄의 느낌을 준다. /조효정 기자

##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 글로스’ 완판행진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뷰티 브랜드 헤라의 신제품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 글로스(사진)’가 연이은 품절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할라피노 미니’가 사전 판매(1만 개) 이벤트에서 단 하루 만에 완판됐고,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과 글로스의 10개 색상 중 7개 색상이 모두 동났다.

브랜드 뮤즈인 제니가 개인 SNS를 통해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 글로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뷰티 카테고리 1위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몰에서 립 메이크업 제품 인기 1위를 달성하고 있다. ‘누드 밤’ 중에는 279호 무디 컬러가, ‘누드 글로스’ 중에는 422호 란제리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조효정 기자